

언택트지만...축제는 계속된다

광주문화재단, '프린지페스티벌'·'무등울림' 등 하반기 행사 온라인 진행 빛고을시민문화관, '침묵의 소리, 침묵의 음악' '월요콘서트' 무관객 상영

광주대표 거리예술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과 전통문화관의 '무등울림'이 비대면 언택트형 축제로 전환된다. 야외에서 공연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힘들어진 현실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꾀한 것.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폭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연기된 다수 행사 일정을 확대,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거리공연예술축제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25일부터 주말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공연단체를 포함 60여 개 단체의 공연이 펼쳐진다. 다만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소규모 대면 공연과 비대면 영상 공연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16-18일 개최 예정인 전통문화관 대표 프로그램 '무등울림'도 언택트형 축제로 운영한다. '희망 울림의 숲'과 '기아에 뽀는 숲' 등 전시프로그램, 태평성대의 개막 축하공연, 다양한 퓨전 기획 공연 등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할 예정이다.

전통문화 융복합프로그램인 '무등풍류 댄'도 기

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부터(매주 토·일요일) 전통문화관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등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전시와 이야기마당, 공연 등을 실시간 상영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인 풍류노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온라인 체험을 준비했다. 아울러 한가위의 풍요와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한데 모아 한가위 등(燈) 전시와 포토존 등도 진행한다.

광주가 낳은 음악가 정용성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정용성음악축제도 언택트로 운영한다. 문화재단은 비대면 공연과 음악회를 영상 촬영 후 온라인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11월에는 오지호 화백의 이야기브전, 그의 삶과 화업을 전하는 강연 등도 비대면으로 펼쳐진다. 무등산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 미술 전도자로 주요 활동을 펼쳤던 오지호의 삶과 예술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예정됐던 강좌와 공연을 영상화해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방영한다. 빛고을레저콘서트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김유미 더 아시안 대표의 '고전 발레를 접목한 한국창작발레의 콜라보레이션'부터 사전에 녹화 편집한 제작물을 온라인으로 송출했다.

오는 24일 김희정 상명대 교수의 '침묵의 소리, 침묵의 음악 : 역사 속에 가려진 음악 속의 여성', 10월 15일에는 조은아 경희대 교수의 '윤이상, 동백림의 동백나무'도 온라인으로 내보낸다.

올해 하반기 모차르트를 테마로 한 '월요콘서트'도 무관객 촬영 영상을 상영한다. 오는 21일 디엠씨아트컴퍼니의 '1791, 모차르트의 마지막 편지'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클래식노바, 광주오페라단, 광현악사중주단, 천천클래식 등의 공연을 10회에 걸쳐 선보인다.

상반기에 베토벤을 테마로 준비했다가 연기된 브래시, 앙상블소아베, 앙상블 P&S의 공연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상영할 예정이다. 문화기있는날 열린소극장도 오는 23일 영택스의 '재즈 클라우드 나잇(Jazz Cloudy Night)'을 사전 녹화영상으로 송출한다.

이밖에 오는 10월 열리는 2020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과 2020광주아시아문화포럼도 참여자 사전등록을 받은 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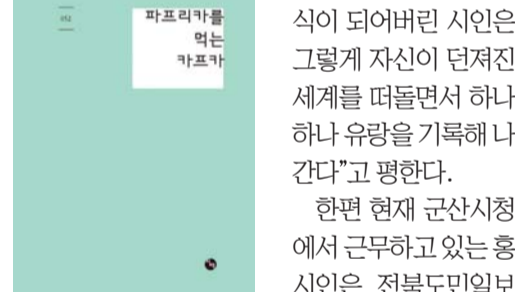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은 프린지페스티벌, 무등울림 등 하반기 다수 행사를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8년 프린지페스티벌 장면.

익산 출신 홍철기 시인 '파프리카를 먹는 카프카' 출간

전북 익산 출신 홍철기 시인이 시집 '파프리카를 먹는 카프카' (시산책)를 펴냈다. '길을 묻다', '밤의 중독', '유빙을 만나다', '지하철', '철새를 만나다' 등 모두 60여 편이 실린 작품집에는 삶의 다양한 사유를 특유의 정직한 언어로 그려낸 시들이 실려 있다.

한용국 시인의 "유랑의 형식을 통해서 내적으로 초월하는 일, 혹은 초월의 의지를 다지는 일이 유배된 자들의 삶"이라는 표현처럼, 작품들은 세계를

떠돌면서 만난 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홍 시인의 작품은 마치 조선시대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유랑을 떠올리게 한다. 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의 떠남 그리고 귀환의 모습들이 펼쳐진다. 그러나 화자의 여정이 외부로만 향하지 않는다는 데 시의 묘미가 있다. 내부에서 내부로 던져지는 양상은 한편으로 인식과 사유의 경계를 뛰어넘는 의미로 확장된다. 한용국 시인은 추천사에서 "유랑만이 존재의 형



식이 되어버린 시인은 그렇게 자신이 던져진 세계를 떠돌면서 하나하나 유랑을 기록해 나간다"고 평한다. 한편 현재 군산시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 시인은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와 '시와 표현'을 통해 등단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9월 27일 '레오나르도 다빈치'
10월 24일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1월 28일 '파블로 피카소'



200명 선착순 온라인강의

지난 2년간 인기를 모았던 광주시립미술관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제3기 토요일 화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을 9월, 10월, 11월 총 세 번에 걸쳐 토요일(오후 3시-5시) 온라인 원격강의(ZOOM)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한다. 참여자는 강좌 개강 10일전(강좌 개강 전주 수요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2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온라인 강의실 링크를 메일로 전송해준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강사(아트 스토리 105 대표)와 함께 떠나게 되는 미술기행은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한 서양미술의 거장으로 구성했다. 오는 27일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그림, 건축,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긴 르네상스인 다빈치의 인생과 함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 다양한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다.

이어 10월 24일에는 '고독하고 쓸쓸한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았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1월 28일에는 '미술사상 가장 나쁜 남자, 하지만 미워 할 수 없는 천재 파블로 피카소'를 주제로 강연한다.

드라마틱하고 입체감 넘치는 강의로 작가의 일생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창용은 로마와 파리 등 주요 미술관 현지 가이드를 거쳐 예술의 정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바티칸 박물관 관련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스토리 105 대표이자 미술사전문 강사로 활약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적격자 없음 의결 존중"

문화도시협·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최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2차 공모 결과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 문화단체는 "공모 과정 형식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사람 추천을 우선

고려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면서도 "1차 공모보다 2차 공모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 출연 기관 대표 공모 과정에서 반복됐던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광주시가 엄격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10월 중 진행될 3차 공모도 1, 2차 공모 과정에서 보여준 임원추천위원회 원칙과 광주시 태도가 유지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인문학강좌 오늘부터 네 차례 온라인 진행

팬데믹 시대의 일상을 성찰하는 인문학 강좌가 마련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재난, 파국 혹은 구원'이라는 주제로 17일부터 네 차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좌(17일)는 '재난과 인간 : 재난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주제로 나란히 희망철학연구소 박남희 교수와 함께 한다. 철학적 시선으로 재난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24일에는 '세계를 구할 자 누구인가 : 재난영화

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영화평론가 심경교 교수가 재난 영화 속 여성인물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어 소영원 문화평론가의 '파괴 혹은 파국 : 재난을 바라보는 여성작가의 시선' (10월8일),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한순미 교수의 '재난 이후, 기억서사와 공동체 재구성' (10월15일) 등을 주제로 한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062-670-0533.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